

일부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융합적 연구

김민아¹, 조윤영^{2*}, 이연경³

¹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²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³송호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A Convergence Study of Subjective Perception of Some Dental Hygiene Major Students

Min-A Kim¹, Youn-young Cho^{2*}, Yeon-Kyoung Lee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재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 교과 만족, 적성에 맞아 입학하는 경우가 정적 영향 미쳤으며 관계 만족, 2학년,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 구축하여 긍정적 인식의 제고와 맞춤 취업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치위생, 주관적 인식, 전공 만족도, 일반 만족,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som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292 enrolled stud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perception,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admission according to general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 and aptitu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nrolled students through improvement of various factors. To this e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aise positive awareness and provide customized employment guidance by establishing various education and counseling support programs suitable for the subject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 Dental hygiene, Subjective perception,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Convergen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ho University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Youn-young Cho(1love@swc.ac.kr)

Received January 7, 2022

Revised January 20,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의료 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됨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1].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동시에 치과 의료 분야 역시 구강보건 전문가이면서 교육자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2]. 구강건강을 위한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서비스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3].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의무감 또한 필요하다[4].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하고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5]. 그러나 치위생과에 입학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주변의 권유, 고교 성적 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4,6]. 이는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공에 대한 부적응과 학과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치위생 학문은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도 한다[3,7]. 전공과 관련된 이해와 만족이 낮은 경우 성적이 떨어지거나 소외감, 학과 이탈감등 부정적 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8]. 이러한 과정은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소모 등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9]. 전공 만족은 본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10]. 치과위생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치위생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동기화를 얻기 위해서는 뚜렷한 직업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공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생길 것이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공 만족도는 본인이 진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보고 되었고[12,13] 진로체제감을 형성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면 직업 만족도가 낮으며 이직률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14].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부 지역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 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최종 자료는 총 297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자 5명을 제외한 292명을 사용하였으며 표본 수 산출 근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192명으로 산출되어 최소 표본수에 충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15명, 여학생 277명이며 1학년 107명, 2학년 90명, 3학년 85명이었다.

2.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 5문항은 성별, 학년, 대학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입학 동기(주변 권유, 적성, 취업률), 임상실습 유무이다. 취업성향 3문항은 졸업 후 진로(타 직종 전환, 치과위생사 취업, 4년제 진학), 취업희망기관(종합/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 취업희망지역(수도권, 비수도권)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는 박[3], 김[15]의 연구를 고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주관적 인식은 4문항으로 사회적 인식과 전공 가치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 .623이며 전공 만족도는 하위 변인 3개(전공 교육에 대한 교과 만족 5문항, 교수와 학생의 관계 만족 4문항, 전공 관심에 대한 일반 만족 3문항)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744 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성향은 교차분석(χ^2 -test)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취업 성향에 따른 주관적 인식 및 전공 만족도는 t-test와 ANOVA

로 분석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치위생 전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성향

Table 1과 같이 성별에서 졸업 후 치과위생사 취업이 남, 여 모두 높고 학년에서 취업희망기관이 1학년은 종합/대학병원이 2, 3학년은 치과의원이 높았고 취업희망지역은 수도권이 높았다. 대학 지역에서 취업희망기관은 수도권이 치과병원, 비수도권이 치과의원이 높고 취업희망지역은 수도권이 높았다. 입학 동기는 졸업 후 치과위생사 취업, 취업희망기관은 주변의 권유로 입학 시 치과의원, 적성이나 취업을 경우는 치과병원이 높았다. 임상실습을 한 경우 취업 희망기관은 치과의원이 높고 취업희망지역은 수도권이 높았다.

3.2 일반적 특성의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

Table 2와 같이 성별에서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족은 여자가 높았으며 학년에서 주관적 인식과 교과 만족, 관계 만족, 일반 만족은 1학년이 높고 2학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지역은 주관적 인식, 교과 만족, 일반 만족이 수도권에서 높았다. 입학 동기는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족이 본인 적성이 맞아 입학한 경우 높았으며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3.3 취업 성향의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

Table 3과 같이 졸업 후 진로는 주관적 인식, 교과 만족, 관계 만족, 일반 만족에서 4년제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높았다. 취업희망기관은 주관적 인식이 높았을 때 종합/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Employment tren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reer after Graduation			p	Hoping Employment				p	Hoping Area		p
		Other jobs	Dental Hygienist	4year Entrance		Gener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Public/ Company		Urban	Rural	
Gender	Male	4 (26.7)	11 (73.3)	0 (0.0)	.000 ***	5 (33.3)	2 (13.3)	5 (33.3)	3 (20.0)	.463	13 (86.7)	2 (13.3)	.382
	Female	11 (4.0)	256 (92.4)	10 (3.6)		67 (24.2)	90 (32.5)	81 (29.2)	39 (14.1)		257 (92.8)	20 (7.2)	
Grade	1	4 (3.7)	100 (93.5)	3 (2.8)	.751	37 (34.6)	31 (29.0)	22 (20.6)	17 (15.9)	.003 **	102 (95.3)	5 (4.7)	.005 **
	2	4 (4.4)	82 (91.1)	4 (4.4)		21 (23.3)	25 (27.8)	27 (30.0)	17 (18.9)		87 (96.7)	3 (3.3)	
	3	7 (7.4)	85 (89.5)	3 (3.2)		14 (14.7)	36 (37.9)	37 (38.9)	8 (8.4)		81 (85.3)	14 (14.7)	
UA+	Urban	9 (4.9)	172 (93.5)	3 (1.6)	.084	50 (27.2)	61 (33.2)	43 (23.4)	30 (16.3)	.003 **	182 (98.9)	2 (1.1)	.000 ***
	Rural	6 (5.6)	95 (88.0)	7 (6.5)		22 (20.4)	31 (28.7)	43 (39.8)	12 (11.1)		88 (81.5)	20 (18.5)	
MOE+	Recommend	8 (12.3)	54 (83.1)	3 (4.6)	.033 *	14 (21.5)	12 (18.5)	28 (43.1)	11 (16.9)	.046 *	60 (92.3)	5 (7.7)	.744
	Aptitude	1 (1.1)	83 (95.4)	3 (3.4)		24 (27.6)	32 (36.8)	23 (26.4)	8 (9.2)		79 (90.8)	8 (9.2)	
	Job	6 (4.3)	130 (92.9)	4 (2.9)		34 (24.3)	48 (34.3)	35 (25.0)	23 (16.4)		131 (93.6)	9 (6.4)	
Practice	No	9 (5.4)	154 (92.2)	4 (2.4)	.527	48 (28.7)	49 (29.3)	37 (22.2)	33 (19.8)	.000 ***	159 (95.2)	8 (4.8)	.040 *
	Yes	6 (4.8)	113 (90.4)	6 (4.8)		24 (19.2)	43 (34.4)	49 (39.2)	9 (7.2)		111 (88.8)	14 (11.2)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UA* : University Area , MOE* : Motivation of Entrance

Table 2. The difference subjective perception and major satisfac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ubjective Perception	t/F (p)	Major Satisfaction(subfactor)					
				Curriculum	t/F (p)	Relationship	t/F (p)	General	t/F (p)
Gender	Male	3.38±0.81	-2.11 (.050) *	3.49±0.76	-1.27 (.204)	3.50±0.76	-1.24 (.233)	2.96±0.60	-2.06 (.040) *
	Female	3.83±0.75		3.74±0.74		3.75±0.83		3.39±0.80	
Grade	1	4.11±0.73	15.207 (.000) ***	3.95±0.73	7.635 (.001) **	3.92±0.83	4.523 (.012) *	3.67±0.75	13.542 (.000) ***
	2	3.56±0.71		3.59±0.73		3.59±0.81		3.15±0.76	
	3	3.72±0.71		3.62±0.71		3.67±0.80		3.23±0.79	
UA+	Urban	3.94±0.77	3.81 (.000) ***	3.81±0.75	2.31 (.021) *	3.71±0.85	-.654 (.514)	3.49±0.83	3.44 (.001) **
	Rural	3.60±0.68		3.60±0.71		3.78±0.79		3.16±0.70	
MOE+	Recommend	3.47±0.74	16.691 (.000) ***	3.55±0.82	2.570 (.078)	3.66±0.94	.648 (.524)	3.05±0.72	9.948 (.000) ***
	Aptitude	4.14±0.56		3.81±0.71		3.81±0.74		3.62±0.68	
	Job	3.77±0.79		3.76±0.71		3.73±0.82		3.36±0.85	
Practice	No	3.84±0.80	.816 (.415)	3.73±0.75	-.099 (.321)	3.70±0.84	-.844 (.399)	3.46±0.81	2.21 (.028) *
	Yes	3.77±0.68		3.73±0.73		3.79±0.81		3.25±0.77	

*p<.05, **p <.01, ***p <.001 by t-test and one-way ANOVA
 UA+ : Univesity Area , MOE+ : Motivation of Entrance

Table 3. The difference subjective perception and major satisfaction to employment trends

Variable		Subjective perception	t/F (p)	Major Satisfaction(subfactor)					
				Curriculum	t/F (p)	Relationship	t/F (p)	General	t/F (p)
Career after Graduaton	Other Jobs	2.88±0.71	14.013 (.000) ***	3.08±0.75	7.387 (.001) **	3.23±0.84	3.151 (.044) *	2.67±0.64	7.701 (.001)**
	Dental Hygienist	3.85±0.73		3.75±0.73		3.76±0.83		3.39±0.80	
	4year Entrance	4.18±0.29		4.08±0.40		3.90±0.46		3.80±0.23	
Hoping Employment	General Hospital	4.05±0.64	5.324 (.001) **	3.86±0.73	1.606 (.188)	3.74±0.77	2.246 (.083)	3.54±0.73	2.493 (.060)
	Dental Hospital	3.83±0.71		3.71±0.70		3.85±0.75		3.42±0.80	
	Dental Clinic	3.74±0.78		3.73±0.76		3.75±0.90		3.23±0.82	
	Public/Company	3.50±0.86		3.55±0.76		3.46±0.88		3.24±0.83	
Hoping Area	Urban	3.82±0.75	.706 (.487)	3.74±0.74	.706 (.487)	3.74±0.84	.337 (.736)	3.37±0.80	.480 (.632)
	Rural	3.69±0.82		3.62±0.70		3.68±0.68		3.29±0.74	

*p<.05, **p <.01, ***p <.001 by t-test and one-way ANOVA

Table 4. Convergent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percep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The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810	.218		3.714	.000
General Satisfaction	.440	.041	.465	10.798	.000
Curriculum Satisfaction	.471	.049	.460	9.552	.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098	.043	-.107	-2.291	.023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	-.138	.067	-.085	-2.062	.040
Grade (2)	.262	.074	.159	3.555	.000
Hoping Employment(Public/Company)	-.193	.073	-.090	-2.645	.009
F= 58.571***		Adjusted R ² = .685 Durbin-Watson : 1.906			

*p<.05, **p <.01, ***p <.001 by mutple regression analysis(stepwise)

3.4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Table 4와 같이 주관적 인식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일반 만족과 교과 만족이 높은 경우, 입학 동기가 적성에 맞는 경우 주관적 인식이 높아지며 학년에서 2학년, 취업희망기관이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를 선호하는 경우, 관계 만족이 높을 경우 주관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이었으며 설명력은 68.5%이었다.

4. 고찰

치위생과 학생들은 장차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취업성향과 전공 만족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서 남, 여 모두 치과위생사 취업이 높았으나 남학생에서 타 직종 전환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비교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후 남, 여의 비율 조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학년에서 취업희망기관은 1학년이 종합/대학병원으로 2, 3학년이 치과의원으로 희망한다고 나왔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종합/대학병원은 채용인원이 제한적이며 정규직의 수가 적으며 채용기회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취업희망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여겨진다[6,16]. 취업희망지역은 모든 학년이 수도권이 높았으며 선행연구[3,15,17]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취업희망기관은 수도권이 치과병원, 비수도권이 치과의원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집결되어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보인다. 입학 동기에서 주변의 권유로 입학 시 취업희망기관은 치과의원, 적성이 맞거나 취업이 잘되어 입학 시 치과병원으로 나타났다[18]. 타의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직업 확신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취업처를 결정하나 적성이 맞고 취업 인식이 뚜렷한 학생들은 규모가 크며 직무 범위가 확대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취업희망기관은 치과병원, 한 경우는 치과의원이 높았다. 치과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규정이 없고 외래 위주로 운

영되는 구조로 치과의원에 비해 규모가 크며 조직 인원이 많고 업무범위가 포괄적이다[19].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은 다양한 임상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취업희망기관 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도의 수준을 살펴 본 결과 성별에서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 점수가 높았다. 김등[20]의 연구는 남학생이 사회적 인식에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하였으나 성별의 표본 수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서는 1,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주관적 인식과 교과 만족, 관계 만족, 일반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다는 김등[20], 정등[21]와 달랐으나 박등[4]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전공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2학년이 낮은 것은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으로 만족감이 하락한다는 결과와 같았으며 박[3]은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전공수업의 스트레스로 높아 만족감이 하락하다가 임상실습을 마친 후 전공 자신감과 취업 기대감으로 3학년이 되면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지역에서 주관적 인식, 교과 만족, 일반 만족은 수도권이 높았다. 정등[21]은 수도권의 교육 환경과 대학의 물리적 시설, 취업 정보 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 환경의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입학 동기는 적성이 맞아서 입학 한 경우 주관적 인식과 일반 만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직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이로 인한 만족감도 높다고 하였다[4,22].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 만족이 높은 결과는 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차별, 불만, 직업 자체의 회의감이 만족도를 하락시킨다는 김등[23]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취업 성향과 주관적 인식, 전공 만족도의 수준을 살펴 본 결과 졸업 후 진로는 4년제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과 전공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4년제 진학 하려는 학생의 성적과 성취도는 우수한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 직업 인식이나 전공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6,20]. 취업희망기관은 종합/대학병원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 있으나 선행연구[15, 24, 25]에서 사회적 지위와 인식이 높을수록 전공 연계성과 주변의 평판을 고려하여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향 있고 임상 의료기관에 불만족하거나 긍정적 직업관의 결여, 직무불만족인 경우 근무환경이 안정적이고 보수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취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치위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 교육 만족, 입학동기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경우 주관적 인식이 높아지며 관계 만족, 학년이 2학년, 취업희망기관이 공공 및 치과유관업체인 경우 주관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주관적 인식은 단기간에 형성되기도는 대학 입학시 부터 형성되므로 전공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26]. 특히 관계 만족이 주관적 인식에 음(-)의 영향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3,16,20]와 상이한 결과로 나왔다. 1996년부터 2010년의 일컫는 MZ 세대의 의사소통은 특정 문제에 대한 평가 및 태도 형성에 있어 본인의 기준이 확실하며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27]. 따라서 이에 맞는 의사소통으로 관계 만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을 조사하여 성비에 대한 비율 차이가 있으며 3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현시점에서 학과 내 교수자들이 재학생의 지도할 때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관적 인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별은 졸업 후 진로 선택, 학년은 취업희망기관과 취업희망지역, 대학 지역은 취업희망기관과 취업희망지역, 입학 동기는 졸업 후 진로 선택과 취업희망

기관, 임상실습 유무는 취업희망기관, 취업희망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주관적 인식은 남학생, 1학년, 대학 지역이 수도권, 적성이 맞아서 입학, 졸업 후 4년제 진학, 종합/대학병원이 이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과 만족은 1학년, 대학 지역이 수도권, 취업시 적성과 장래성 고려, 졸업 후 4년제 진학이 높았고 관계 만족은 1학년, 졸업 후 4년제 진학이 높았다. 일반 만족은 여학생, 1학년, 대학 지역이 수도권, 적성이 맞아서 입학, 임상실습 하지 않은 경우, 졸업 후 4년제 진학이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만족, 교과 만족, 적성에 맞아 입학하는 경우가 주관적 인식이 정(+)의 영향이었으며 관계 만족, 학년이 2학년, 취업희망기관이 공공 및 치과 유관업체인 경우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제고를 돕기 위한 긍정적 만족 향상, 올바른 관계 형성, 개인별 맞춤 취업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REFERENCES

- [1] S. K. Jun, S. S. Lee & D. A. Kim. (2014). Problem-Solving abi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 in accordance with meta-cognition lev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5), 667-672. DOI : 10.13065/jksdh.2014.14.05.667
- [2] J. Park, H. J. Song & H. Y. Kim. (2010).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1), 197-213.
- [3] K. S. Park. (2015). *Self-efficacy and the satisfaction on dental hygiene-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Jeju.
- [4] K. H. Park & H. J. Choi. (2015).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2), 279-286. DOI : 10.13065/jksdh.2015.15.02.279
- [5] H. J. Jin & H. Y. Kim. (2011). Dental hygiene freshmen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its influence perception of occupational

- consciousn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6), 893- 900.
- [6] M. H. Yun, M. G. Ji & M. W. Shin. (2020).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6), 183-192. DOI : 10.22156/CS4SMB.2020.10.06.183
- [7] S. M. Lee, S. J. Kim & S. J. Han. (2005). A Study of Work Values on the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5(4), 239-244.
- [8] S. J. Jo. (2010).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choice based on customer centered educatio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3(3), 111-151.
- [9] S. Y. Kim. (2007). *A research on selective motives for specialization and career decision of gradutors majored social welfare in university-case of three universities in chonbuk region*.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10] G. O. Jung, G. Y. Choi & J. Y. Bae. (2013).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3(1), 61-68. DOI : 10.13065/jksdh.2013.13.1.061
- [11] S. G. Kim, Y. K. Koo & M. A. Jeong. (2012).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8), 248-255. DOI : 10.5392/JKCA.2012.12.08.248
- [12]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 DOI : 10.5977/JKASNE.2010.16.1.083
- [13] Y. S. Kang & S. K. Hwang. (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3309. DOI : 10.5762/KAIS.2013.14.7.3301
- [14] C. H. Kim, J. H. Kim & S. H. Hong. (2011). Comparison of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J Korea Acad Ind coop Soc*, 12(1), 327-334.
- [15] S. S. Kim & E. K. Go. (2006).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6(2), 139-145.
- [16] M. K. Jeong & J. Y. Lee. (2012).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2(6), 1241-1249. DOI : 10.13065/jksdh.2012.12.6.1241
- [17] J. M. Choe. (2009). Dental Hygiene Major student's Curriculum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n Their Occupation in Kyungnam A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0(2), 95-108.
- [18] K. S. Kim & H. W. Cheon. (2019). A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7(2), 1-16.
- [19] J. S. Lee. (2016). *Organization Structure of Dental Hospital and Job Analysis of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Namseoul University, Cheonan.
- [20] M. N. Kim, Y. M. Heo, H. J. Kim & Y. S. Ahn. (2015).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1), 81-89. DOI : 10.13065/jksdh.2015.15.01.81
- [21] S. H. Jung, E. H. Kim & H. S. Kim. (2011).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tudents fro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major in different reg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1), 69-79.
- [22] J. H. Park, H. J. Song & B. Y. Lee. (2018).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261-269. DOI : 10.15207/JKCS.2018.9.6.261
- [23] S. K. Kim, R. U. Kang, E. Y. Kim, J. E. Moon, J. H. Jang & E. S. Jung. (2018).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2), 239-251. DOI : 10.13065/jksdh.2018.18.02.239
- [24] H. K. Oh. (2018). *Effects of the Recognition of Oral Hygiene Psycho-social Factors, and*

Conditions of Clinical Practice on Willingness to Work as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Shanyook University, Seoul.

- [25] S. H. Jeong et al. (2018). A study on career competency, task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Focusing on public officials, public institution workers, and research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4), 477-488.
DOI : 10.13065/jksdh.20180043
- [26] S. Eom, Y. J. Choi & B. H. Lee. (2019). The Influence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2), 151-158.
DOI : 10.15207/JKCS.2019.10.12.151
- [27] J. H. Shon, C. S. Kim & H. S. Lee. (2021). A study on the response of each generation to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77, 203-216.
DOI : 10.25111/jcd.2021.77.14

김민아(Min-A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3년 8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학, 융합
- E-Mail : uriaju@songho.ac.kr

조윤영(Youn-young Cho)

[정회원]



- 2009년 8월 :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6년 8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의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융합
- E-Mail : 1love@swc.ac.kr

이연경(Yeon-Kyoung Lee)

[정회원]



- 2009년 8월 :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석사)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 박사)
- 2014년 1월 ~ 현재 :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면세마, 의료법규
- E-Mail : lyk0312@songho.ac.kr